

대기영향예측시스템 지자체에 공개… 지역별 대기질 관리에 다방면 활용

- 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 활용한 모델링 시스템과 기초자료 제공
- 전산장비 공동 활용 및 기술지원을 통한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지원

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(센터장 성지원)는 대기 정책 수립 및 평가 시에 활용 중인 대기영향예측시스템(NEAS*)과 시스템 구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1월 22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공개한다고 밝혔다.

* National Emission and Air-quality assessment System(NEAS)

대기영향예측시스템은 대기 중 오염물질의 배출, 화학반응, 이동을 계산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발생 원인을 비롯해 저감 정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이 시스템을 2020년부터 구축을 시작해 지속적으로 개선 작업(업그레이드)을 하고 있다.

이 시스템은 지난해 말 환경부에서 수립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(2025~2029)에 활용됐으며, 이를 기반으로 권역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(2025~2029)이 수립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올해 중으로 수립해야 하는 세부 시행계획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.

이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지자체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 당시 사용했던 대기영향예측시스템(NEAS)을 지자체에 공개한다.

아울러 종합계획 수립에 적용한 기상,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 기초자료 일체를 함께 제공하여 국가 계획과 지자체 계획 간 정책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.

지자체에 제공하는 시스템은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(L-NEAS)*으로 세부 시행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지역별 오염 특성을 고려한 발생 원인 분석이나 대책 마련 등 지역 대기질 관리에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하다.

* Local National Emission and Air-quality assessment System(L-NEAS)

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(L-NEAS) 사용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신청 후 활용할 수 있다.

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시스템 사용 설명서와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공하고, 연 2회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. 또한 지자체의 문의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업무지원 접수처(043-279-4531)도 운영한다.

붙임 대기영향예측시스템(NEAS) 개요. 끝.

담당 부서 < 총괄 >	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책지원팀	책임자	팀 장	송태곤 (043-279-4510)
		담당자	연구사 연구사	박윤서 (043-279-4531) 배창한 (043-279-454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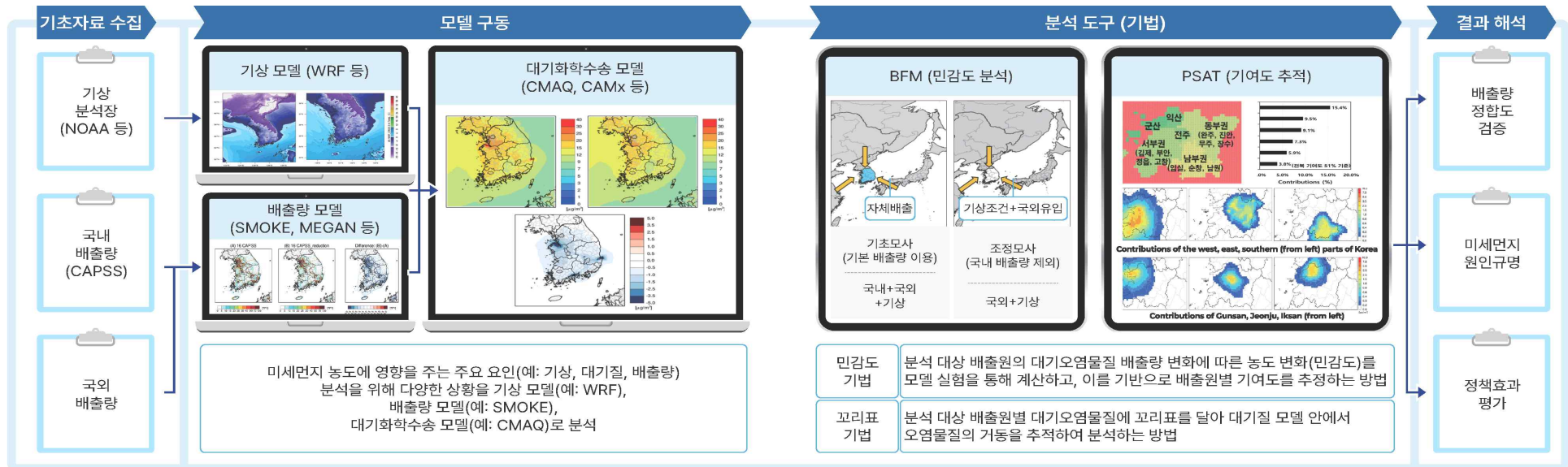


붙임 대기영향예측시스템(NEAS) 개요

- '20년부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고해상도(3km, 1km) 기상-배출량-화학수송 모사 시스템 구축·운영 중
- 대기오염물질 배출량·화학 반응·침적 계산을 통한 정책 효과 분석, 배출량 검증, 대기오염 발생원인 분석 등에 활용

< 대기영향예측시스템(NEAS) 운영 체계 >

• NEAS 모델 구동 절차



• NEAS 자료 활용 사례

